

SK, 페루광구 LNG 미국·멕시코에 수출

SK는 페루 카미시아 및 파고레니 광구에서 개발중인 LNG를 연간 420만톤씩 스페인인 Repsol-YPF를 통해 2009년 하반기부터 멕시코 및 미국 서부지역에 18년간 공급한다고 8월2일 발표했다.

SK는 미국 헌트오일과 2003년부터 지분비율 30대70으로 카미시아 광구에서 LNG 개발을 진행해왔다.

LNG 공급계약을 통해 Repsol이 LNG 구매와 동시에 지분의 20%를 인수해 지분비율 구조가 헌트 50%, SK 30%, Repsol 20%로 변경됐다.

SK는 “세계 10위권의 석유 메이저인 Repsol-YPF의 페루 LNG 구매 및 지분 참여로 페루 LNG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”으로 기대하고 있다.

SK는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기업들과 함께 예멘 LNG 사업 등 4개의 LNG 해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8/04>